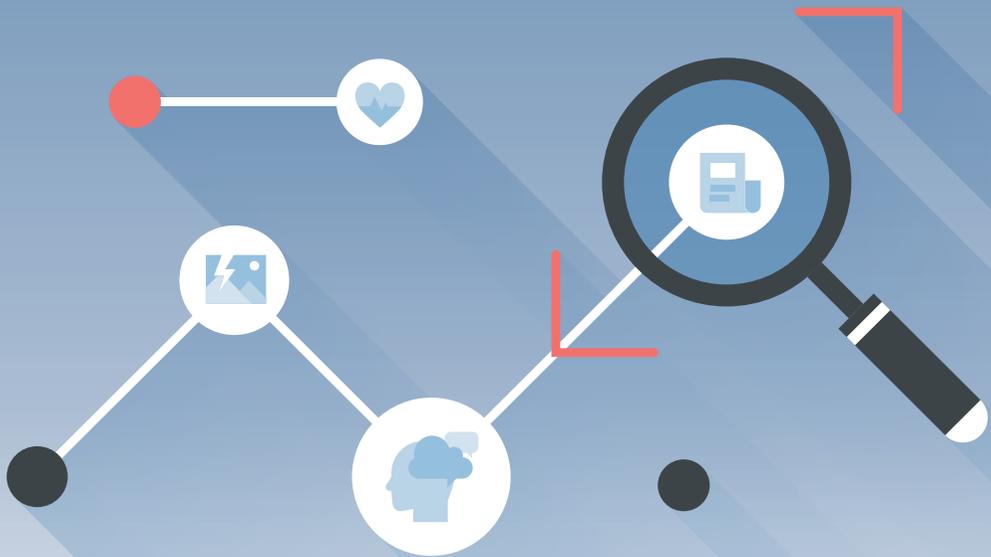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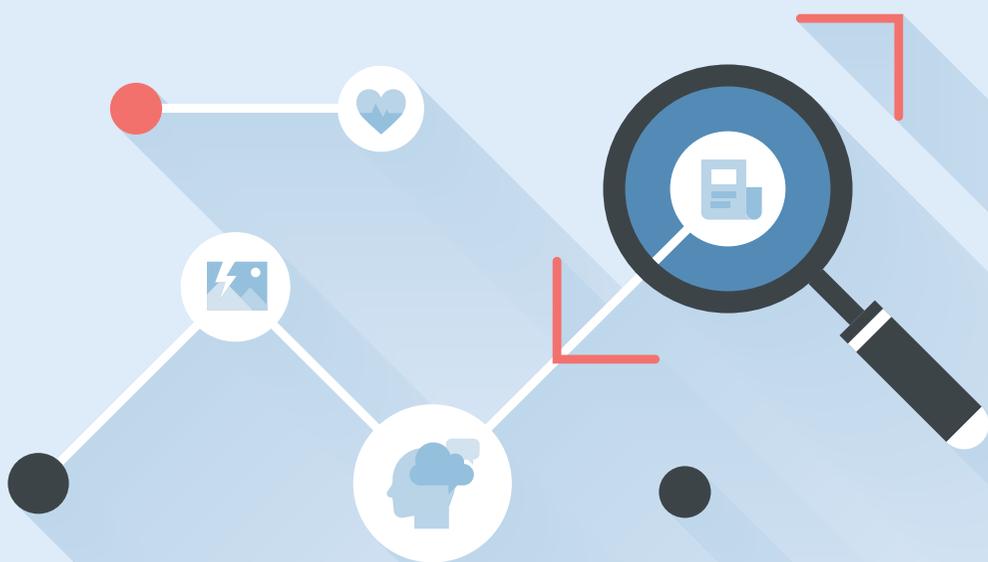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바로가기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의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배경 및 방향

2024년 11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협력하여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공동으로 제정·발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보도는 국민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은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이 정신질환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책임 있게 보도하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핵심 원칙

- ①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혐오·공포조장 표현, 진단명을 수식어로 사용, 정신질환 경험자 비하표현)
- ③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 ④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권고기준은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세미나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언론과 정신건강 분야 간 협력의 성과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그리고 관련 언론관계자들은 본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언론계의 자발적 실천과 주도적인 변화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01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 정신질환 당사자와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것은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편견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 보도 전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 ① 당사자는 '정신질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The Lancet Commission on end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mental health)¹⁾.
- ② 당사자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은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인식향상과 낙인 해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Graham Thornicroft, WHO mhGAP 개발위원장)²⁾.

나 다양한 회복 사례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 회복이란, 정신질환을 극복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거나 더 이상의 치료개입이 필요 없는 완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그대로 인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배제와 격리의 관점보다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시각이 중요합니다.

참고



「바울의 가시」는 정신장애인이자 언론인인 이관형 대표(마인드포스트)가 회복과 성장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로, 당사자의 시선으로 고난을 극복해 온 용기와 삶에 대한 의지를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 달리버리 업무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일하는 정신장애인의 하루를 담은 영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한 도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1) The Lancet Commission. (2022). Time to act: The Lancet Commission on end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mental health. The Lancet, 400(10361), 1438–1480. [https://doi.org/10.1016/S0140-6736\(22\)01470-2](https://doi.org/10.1016/S0140-6736(22)01470-2)

2) Thornicroft, G. (2024). Interviewed i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s://www.who.int/europe/news/item/26-06-2024-the-overwhelming-case-for-ending-stigma-and-discrimination-in-mental-health>

02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 혐오·공포 조장 표현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흥기테러 등

(2023년 4월 3일자 보도)

미준수

정신병원 탈출 위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받았다.

: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광역시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4년 6월 25일자 보도)

미준수

정신병원서 조현병 환자 도주... 다섯 시간 만에 붙잡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현병 환자가 도주해 다섯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탈출해 다섯 시간 만에 붙잡아 재입원 조치했습니다.

:

한편, A씨는 지난 8월 행인에게 흥기를 휘둘러 강제입원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2024년 3월 11일자 보도)

미준수

부산도시철도 열차에서 종이에 붙낸 정신질환 의심 50대 경찰에 붙잡혀



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는 **우울증**과 함께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2024년 2월 18일자 보도)

미준수

1년여간 욕설·폭행·추행... 조현병 30대, 결국 실형



일면식 없는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2024년 8월 22일자 보도)

미준수

정신병 앓던 30대 아들, 어머니 목 졸라 살해...현행범 체포



정신병을 앓는 **30대**가 어머니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 증상이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 14일자 보도)

미준수

“윗집에 정신병자가 살아요”... 보복성 증간소음에 ‘공포’와 ‘고통’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보복성 증간소음 윗집에 **정신병자가 살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엄마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아파트 19층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며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03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가 기사 제목과 도입부에 정신질환 관련 단어를 사용한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5일자 보도)

미준수

부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法 “수법 매우 잔혹”

흥기 수십 차례 휘둘러 父 살해 혐의
당시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질환 앓아**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함께 살던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B씨를 흥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 그는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 31일자 보도)

미준수

흥기 들고 초등학교 운동장 배회… 30대 **조현병 환자** 체포

흥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운동장 들어가
위험성 고려해 가족 동의 받아 **강제입원 조치**



흥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침입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로, 특별한 목적 없이 학교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A씨를 **강제입원 조치**했다.

기사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중들은 기사제목과 도입부만 읽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편견과 낙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보도에서는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관련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04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0일자 보도)

미준수

“허공에 깔질하는 조현병 남성 목격”... 인천 서구 ‘발각’

[하곳길 학생 안전 주의]

지금 청라내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하교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연락하시어 밖에서 놀지 말고,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가는 길도 주의 바랍니다

엑스 이용자 A씨는 “오늘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학원이 준비한 도로에서 허공에 깔질하는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

:

누리꾼들은 “**조현병이 진짜 어렵다**.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 “살인 연습하는 거 같다”, “**강제 입원 부활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3년 6월 1일자 보도)

미준수

출근길 女에 “죽여줄게” 펑펑... 서울서 또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엄벌 탄원서

*는 필수항목입니다.

사건개요

2022년 8월 서울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키 150cm의 작은 체구의 여성을 약 20분동안 쫓아 다녔고 묻지마 폭행한 상해 사건

탄원서 모집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람입니다.
2.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약 20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떨어지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게 체포 되었으나 당일 풀려났고, 정신병을 주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정신병원과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4. 하지만, 가해자는 폭행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어는사이예요, 장난치는거예요’등의 연금술 하며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사건 처리 과정 중 가해자의 가족은 피해자 측에게 ‘우리는 민사소송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발언과 함께 일에 맡기 못할 욕을 하며 피해자 측을 조롱했습니다.
6.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이 거루하고 있어도 분리시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1일 **네이트판**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디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즉시 풀려났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기사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확한 출처가 확인 되지 않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이는 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낙인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표현하는가는 낙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을 진단명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며, 진단명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며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행위자의 정신질환을 의심하여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9일자 보도)

미준수

옛 직장동료 살해 후 방화...“정신질환 의심”



경찰에서 A씨는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편을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황설수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병원 진료를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확인되기 전에 의심된다고 추정보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도시 이를 암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언급하는 보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 경찰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 인용 시, '정신질환 이력'만을 범행 사유로 언급

(2024년 7월 17일자 보도)

미준수

이웃 노인들 폭행해 사상케 한 조현병 40대, 징역 30년 구형



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다짜고짜 이웃 노인들을 마구 때려 사상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검사는 “박씨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의 노인을 사상케 해 죄질이 나쁘다. 유족 등과 합의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질환 이력 등을 들어 치료 감호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사고의 원인 및 범행 동기는 다양하며,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는 순간,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이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주의할 보도: 가해자의 '정신질환' 특성

총기 난사·테러 보도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같은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 모방 행동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AVE는 여러 미디어 전문가들과 국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총격 사건 권장사항에 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이 발생했다고 하지 말 것, ② 목격자의 '미쳤다', '정신나갔다'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③ 범죄 현장사진 보이지말 것, ④ 가해 자의 정신상태를 추측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원 :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WHO, 2023),
RECOMMENDATIONS For Reporting on Mass Shootings(SAVE)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의 반복성을 강조한 보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5일자 보도)

미준수

**또 조현병 비극...
맴도는 ‘사법입원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며 관련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

망상 등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지면 A씨 아버지 등 가족은 딸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시켜 집에 데려오기를 반복했다.

조현병 환자 등의 망상에 따른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도 발생했고,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 **흥기 난동**도 있었다.

(2023년 6월 1일자 보도)

미준수

**난리난 서울 목동 거리,
난데없이 ‘묻지마 폭행’ 발생...
여성 3명, 남성 1명 피해**



경찰은 A씨가 과거 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피해정도가 경미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과거 정신질환과 연관지어 보도된 사건을 덧붙여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자가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만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전체를 일반화하여,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05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17일자 보도)

미준수

조현병 앓아... 옆집 이웃 살해 후
도주한 30대 붙잡혔다



(2024년 1월 5일자 보도)

미준수

망상·환각·황설수설...
전 세계 2000만명 앓는 조현병



자극적인 삽화를 인용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보다는, 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각인 효과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7일자 보도)

미준수

강남역 살인범부터 부모 살해범까지... 60%가 조현병 환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 범죄자(범법 정신질환자)는 796명이었다. 이 중 60%가량인 477명은 조현병 환자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의 85%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자신의 병을 간호하던 가족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등도 많다”고 했다. 그 외에도 조울증(69명), 정신지체(55명), 망상장애(41명) 범죄자도 있었다. 범죄자들은 정신질환 유형에 따라 15개의 병동에 나누어 수용된다고 한다.

2018년 12월, 교수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였다. 박씨는 2020년부터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기사를 12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도 이 병원에 입원해있다. 작년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범죄 관련 자료의 선택적 발취 및 인용은 그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 4월 5일 공개)



▲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 1화

“조현병이야?”
“폭력 전과 2범에 그, 조현병력이 좀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공개)



▲ [영화] 범죄도시2

“저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에서 탈출했어요”

전통적인 방송 매체와 다양한 디지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정신질환을 공포, 혐오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더욱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 10월 28일자 보도)

[기획] 망상, 가족을 삼키다



정신건강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취재내용을 담았음에도 자극적이고 어두운 삽화와 리드문은
보도의 긍정적 효과가 희석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자료는 기사의 메시지와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할 때
정신건강보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WHO가 말하는 정신건강과 낙인, 그리고 미디어



낙인은 질환보다 더 큰 고통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PWLE) 대부분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보다 낙인과 차별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WHO의 45개국 정신적 어려움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증상 외에도 잘못된 정보, 부정적인 태도(편견), 차별적 행동을 경험하며, 이는 삶과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낙인과 차별이 초래하는 개인·사회·경제적 악영향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도움 요청의 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이하 당사자)의 직업·교육·대인관계·지역사회 참여 등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개인적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 낮아짐 삶의 질이 낮아짐 자기낙인(Self-stigma)으로 인한 절망감 자살위험 증가 직업·교육·대인관계·지역사회 참여 어려움	혐오·배제 분위기 고용, 투표, 재산소유, 결혼 등에 권리제한 연관낙인으로 인한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체계의 부족 정신건강 서비스·정책에 대한 투자 부족



낙인과 차별 해소의 핵심: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간접적인 사회적 접촉의 키는 미디어!

연구에 따르면 낙인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사자와의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입니다.

사회적 접촉의 방법은 직접접촉 외에도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 **Electronic contact** SNS와 같은 온라인상 쌍방향적 상호작용
- ▶ **Vicarious contact** TV·라디오·뉴스·책 등에서 당사자의 긍정적 사례 관찰
- ▶ **Parasocial contact**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서 당사자를 긍정적으로 묘사·접촉

이러한 미디어 기반 접촉도 낙인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자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제작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혹시

정신건강 낙인 해소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중의 인식은 개선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No

대중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당사자와 그 가족, 공동체, 사회 및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낙인은 치료와 지원의 방해요인이자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 낙인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개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자(PWLE)의 자기효능감 증진 및 자기 낙인 감소, 차별 감소, 사회적 투자 등에 효과를 보입니다.

낙인해소는 서비스 확대와 별개다?

No

낙인을 해소하는 것은 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원을 보완·강화합니다.

아무리 증상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낙인으로 인한 고용, 교육, 관계, 사회적 지지 등 결정요인이 무너지면 정신건강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낙인, 연관 낙인(가족 및 관계자 낙인), 구조적 낙인은 전문인력 부족, 사회 및 국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No

이러한 생각은 정부와 정치계에서 갖고있는 낙인과도 이어집니다.

오히려 낙인해소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한다면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정책적 재정적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낙인과 차별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자원배정을 가로막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부족할것이라 여겨, 정신건강서비스를 '예산삭감이 쉬운표적(soft target)'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투자를 위해서라도 낙인 해소는 광범위한 대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자료원: Mosaic toolkit to end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mental health (WHO, 2024)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한국기자협회 추천	지형철	KBS	기자
	김표향	한국일보	기자
	구무서	뉴시스	기자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
중앙지원단 추천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해우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미경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이관형	마인드포스트	대표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바로가기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흥기테러' 등)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의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대중들은 기사제목과 도입부만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불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대중들은 기사제목과 도입부만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불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의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의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기선완, 백종우
편집인 나희경, 이다경
대표전화 (02) 747-3070
인쇄 및 디자인 에이티디자인 070-4118-6660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사례집



권고기준 사례집
바로가기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바로가기